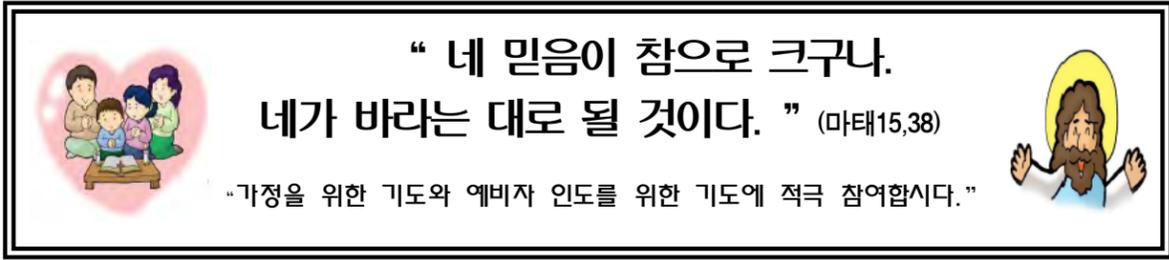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7월 기도지향

-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김지민(글라라), 김민정(리디아)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가정

오늘은 “연중 제13주일(교황주일)” 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 주일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 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를 더욱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성하를 위해 “교황님을 위한 기도”(기도서 90쪽)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입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오,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받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육중 편지의 일부분).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금·토요일 신심행사 및 미사

- 『첫금요일 십자가의 길 및 미사』 : 7월 6일(금) 오전 10시
- 『첫토요일 묵주기도 및 미사』 : 7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62	211	170, 161	400

주일미사 복사

	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07/01)	고영방(스테파노)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준구(파비아노) 정병훈(보니파시오)
다음주일 (07/08)	안동현(프란치스코) 안지영(가타리나)	문석찬(요 셉) 문호진(안토니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7/01)	최은미(아 네 스) 박혜정(가타리나)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 브 가)
다음주일 (07/08)	박혜정(가타리나) 김주연(세실리아)	김태중(예레미야) 김시연(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7/01)	김시연 엘리사벳, 안혜진 임마콜라따, 한정숙 마리아
다음주일(07/08)	문문주 엘리사벳, 최은미 아네스, 배복선 한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 <6월 24일>
- 미사참례 : 80명
- 주일헌금 : \$355
- 교 무 금 : \$55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평 일 :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교황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훌륭히 이끌어 나가시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 합니다.

성화해설

상주 신앙 고백비
안동교구,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삼괴리 소재.

한국교회 유일의 ‘신앙 고백비’가 있는 삼괴리에는 1866년 병인박해 전부터 김복운의 아들 4형제가 천주교를 믿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 중 차남인 김삼룡은 박해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박해에서 벗어나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천주님과 교황, 주교, 신부, 교우를 위한 기도를 단단한 바위 위에 직접 새겼다. 1980년대에 와서 교회의 사적으로 고종된 이 비(碑)는 2009년 경북 문화재자료 제562호로 지정되었다.

주호식 피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 서 : 지혜 1,13-15; 2,23-24 <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



주 님 께 서 저 를 구 하 셨 으 니 제 가 당 신 을 높 이 기 리 려 하 나 이 다 -

-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원수들이 저를 웃지 못하게 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높이기리려 하나이다 주님 제 영혼을 명부에서 건져주시고
구령으로 들지 않게 되살려 주셨나이다. ◎
-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그 성도들이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 노여우심은 잠시 뿐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가나니
울음이 저녁에 깃들어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
- 주님 들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몸을 돕는 분이 주님 되시옵소서.
이 내 슬픈 울음을 춤으로 바꾸소서 주 저의 하느님이며,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오리다.◎

제 2 독 서 : 2코린 8,7.9.13-15 <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줍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 음 : 마르 5,21-43<또는 5,21-24.35-43>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

말씀의 이삭

“다시 일어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란 있을 수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죽음만이 휘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 낚을 놓고 있거나, 주어진 상황을 저주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통 중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저주스런 고통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된 상황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전해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가산을 모두 탕진한 여인, 그리고 어린 나이에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어린 여자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새로운 삶을 맞아하게 됩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지만 불가능해 보이고, 갸름하고 답답하기만 하던 상황이, 나자렛 촌동네의 예수라는 젊은 총각에 의해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오랜 고통 중에 있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하고는 상관없이 느껴졌던 상황들이 하나씩 주변에서 펼쳐지고, 몸도 마음도 생기를 잃어가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고통은 고통받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가 좋은 쪽이든

지, 아니면 나쁜 방향이든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받아들여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보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강한 희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기도 전에 걱정만 많으며, 매달리기 전에 실망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녀처럼 고통 중에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힘들 때 읽었던 시인 오드라의 “서서 죽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주저 앉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남았다. 꺾어라. 나의 고통이여, 조금 남았다. 세 발짝도 좋으니 부디 멈추지 말아라. 너를 쫓아가는 건 나. 너와 나 두 사람뿐. 저 산마루에 오를 때까지 쓰러져서는 안된다. 길은 높고 험하지만 곧다. 어떻게 하든, 막다른 저 곳에 이를 때까지 너는 죽어서는 안된다. 더 묻지 말라. 십자가 위라면 선 채로 죽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지금 나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다. 나의 손을 잡고 고통과 죽음에서 일어나거라.”** 아멘.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너를 아프게 하는 나, 나를 사랑하는 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가계부 사정은 자꾸만 어려워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자꾸 늘어만 가지만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조금은 여유를 부릴 수 있습니다. 어려모로 힘이 들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사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간에는 나는 과연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너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너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내 판단에 눈이 멀고, 나를 사랑하는 너는 자신의 겸손에 마음이 넓어진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며, 나를 사랑하는 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일지를 깨트리지만, 나를 사랑하는 너는 갈림을 하나되게 하는 사람이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어내지만, 나를 사랑하는 너는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를 아프게 하는 나는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며, 나를 사랑하는 너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다.

교부들의 신앙

순교록과 수난기

모질고 잔인한 죽음 앞에서도 끝끝내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신자들은 더욱 장엄하고 감동적인 필치로 순교록과 수난기에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작품에는 저자 개인의 감상이나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때로는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서술방법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빠르빠뚜아와 펠리치파스의 수난기는 여러 수난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작품이다. 이 수난기는 젓먹이를 둔 스물 두 살의 신심깊은 귀부인 빠르빠뚜아와, 예비자였지만 굳은 신앙을 지닌 만삭의 몸종 펠리치파스의 수난과 순교 이야기를 전해준다. 빠르빠뚜아의 연로한 아버지는 딸을 배교시키려고 세 차례나 눈물로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 아버지와 딸의 가슴 아픈 상봉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며칠 후 우리가 심문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고통으로 초주검이 되어 내게 달려오셔서, 내 마음을 돌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 백발의 아버지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참으로 네 아버라 불릴 수 있다면, 참으로 꽃다운 네 지금 나이에 이르도록 내 손이 너를 이끌어 왔다면, 내가 너를 네 동기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귀여워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발 나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다오. 네 동기들을 좀 생각해보렴. 네 어미를 좀 생각해보렴. 네 고모와 네 자식을 생각해주렴. 너없이 그 아이가 어찌 살겠니?’ 정말이지 아버지는 참으로 애뜻한 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손에 입 맞추시고 내 발에 엎드리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나를 딸이라 부르지 않고 마님이 라 부르셨다. 아버지의 이 고통이 나에게 깊디깊은 아픔을 주었다”.

수난기와 순교록에는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곳곳에 배어 있기도 하고, 때로 과장된 이야기들이 곁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삶과 죽음을 기리는 신자들의 뜨거운 사랑과 존경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순교자 행진, 수난기, 순교록이라는 넓은 발에는 순교자들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보화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 발에서 보석들을 주워 담고 신앙생활 안에서 본받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